

전남예총 회장 16년만에 바뀐다

하철경 한국예총취임 8일 보궐 선거 실시

(사)한국예총 전남연합회(이하 전남예총) 회장이 16년만에 바뀐다. 장기 재임했던 하철경(화가·호남대 교수) 전 회장이 최근 한국예총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잔여 임기 3년을 책임질 10대 회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지난 1964년 설립된 전남예총 회장 자리는 김남중·박상구·임병성씨가 거쳐갔으며 지난 1987년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후에는 초대 회장으로 정홍수(국악인)씨가 취임했다. 이후 서예가 전종주씨가 2대와 4대, 화가 김암기씨가 3대 회장을 맡았으며 하철경 회장이 지난 1996년부터 5대부터 9대까지 16년간 재임해왔다.

이번 제10대 회장 선거에는 모두 세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으며 공교롭게도 모두 미술인들이다.

선거는 8일 오후 4시 광주 서구 농성동 전남예총 사무실에서 열리며 대의원 156명이 참여하는 간접 선거로 진행된다. 투표 참가자의 과반수 득표를 얻으면 회장으로 선출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 다득점자가 회장이 된다.

기호 1번 홍정수(52)씨는 순천 출생으로 원광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전남비협회장을 맡고 있다.



홍정수



김왕현



전종구

“예술인 위상 회복” “회원 화합 도모” “세대·장르간 소통”

전남예총회장 건립
원로 예술인 지원

섬 순회 전시·공연
예술 체험학교 운영

청년 작가상 신설
예총발전특위 구성

홍씨는 공약으로 ▲원로 예술인들의 복지와 창작 지원 ▲전남 지역 우수기업과 연계, 예술상 제정 ▲전남예총회관과 남도예술의 전당 건립 추진 등을 내걸었다.

홍씨는 “전남 지역이 진정한 예향이 될 수 있도록 회원들간의 결속을 다져 나가는 한편 전남도 등 관과의 협조를 통해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경쟁력 있는 예총, 회원들이 주인이 되는 예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 2번 김왕현(59·동신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씨는

과를 졸업한 전씨는 전남도 미술대전 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한국서예 현대서예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씨는 “지난 예총이 성과도 있었지만 한 사람 체제로 운영되면서 소통이 안되는 부분이 많았다”며 “지역간, 세대간, 장르간 소통에 힘써 지역 작가들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벨기에·광주 연주자 만나 ‘하모니’

내일 드방아트홀 ‘실내악 연주회’

벨기에와 광주의 연주자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든다.

브뤼셀 왕립음악원 교수들과 함께하는 실내악 연주회가 7일 오후 7시 드방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첼리스트 디디에 보스켄, 바이올리니스트 아사벨 본지르, 비올리니스트 다이엘 루빈스타인 등 왕립음악원 교수들과 광주에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조현영, 첼리스트 윤소희, 바이올리니스트 김정아·염은하, 비올리니스트 김현경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레퍼토리는 광주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현대음악곡들로 꾸며졌다.

염은하, 루빈스타인, 보스켄, 조현영은 투



리나의 ‘피아노 4중주 A단조 작품 67’을 들려주며 김정아와 보스켄은 코다이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듀오 작품 7’을 선사한다. 또 도흐나니의 ‘피아노 5중주곡 2번’은 루빈스타인, 본지르, 윤소희, 김현경, 조현영

의 연주로 만날 수 있다. 한편 벨기에 연주자들과 조현영, 김정아씨는 벨기에 대사관 초청으로 8일 서울에서도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문의 010-9456-67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목포 출신으로 조선대 미술교육과, 동국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사)전국 조각가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씨는 ▲신안군·여수시와 협의, 섬마을 순회 전시와 공연 서비스 제공 ▲전남도교육청과 협의, 공예예술·전시예술체협 및 시범학교 운영 ▲전남예총 전통 계승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씨는 “예향으로 불리는 전남 예술의 전통을 소중히 하고 회원들간의 화합과 정보 교환을 위해 힘쓰는 전남예총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연극, 무용 등 예총 산하 각 예술장르가 골고루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화합과 소통”을 내세운 기호 3번 전종구(47·서예가)씨는 공약으로 ▲원로 작가상, 청년작가상 신설 및 예술 전공자 장학사업 확대 ▲전남예총 화합 한마당 행사 실시 ▲예총 발전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할 전남예총 특별위원회 구성 ▲예총가족 쉼터기 상조회 운영 등을 내걸었다.

여수 출신으로 호남대 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한 전씨는 전남도 미술대전 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한국서예 현대서예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씨는 “지난 예총이 성과도 있었지만 한 사람 체제로 운영되면서 소통이 안되는 부분이 많았다”며 “지역간, 세대간, 장르간 소통에 힘써 지역 작가들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읽고 보고 듣고...신난다 도서관

12~18일 ‘도서관 주간’ 맞아 행사 다채

광주·전남 도서관들이 ‘제 48회 도서관 주간’(12~18일)을 맞아 ‘책 읽는 광주·전남’을 만들기 위한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봄손님 맞이에 나선다.

책만 읽는 것이 아니냐는 설부른 판단은 금물. 초청 강좌·책 나눔·전시·책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로 아이에게 ‘놀이 뒤’, 어른에게 ‘문화센터’ 같은 친밀함을 내세워 다가가고 있다.

◇무등도서관=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그림책 깊이 읽기’에 대해 정봉남 아이수 작은도서관장의 특강(12일)을 비롯,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활동을 소개하는 ‘Mommy&Me Cafe’(13일), ‘도서관에서 건진 상위 1% 교육법’(16일) 등의 강연회가 열린다. 출판사 길벗의 그림책 원화 전시회도 25일까지 열리고 ‘책 다모아’라는 기증 행사도 열린다.

◇시작도서관=청소년들을 위한 ‘A-HO! 내가 전설이다’(14일) 행사와 ‘동화 속 용 이야기’ 테마도서관(18일까지)과 과년도 잡지 나눔 장터가 열린다. 어린이자료실 내 빛그림터에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DVD’를 상영하고 단물고개 그림책 원화 전시회도 진행된다.

◇신수도서관=‘SBS 우리아이 달라졌어요’의 박희석씨가 강사로 나서 육아 발달을 위한 부모 역할에 대한 강의(13일)를 진행하고 남광주역을 찾아 즉석 도서대출 회원증 발급 행사(13일)도 갖는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인형극 ‘예쁜 개망이’(15일)도 시청각실에서 공연된다.

◇서구 생태학습도서관=학부모 40명을 대상으로 한 ‘행복한 우리아이 꿈을 품다’ 특강(14일)을 개최하는 한편, 초등학생 4~6학년 20명을 선착순 모집, 한지를 이용한 책만들기(15일) 행사도 진행한다. 고정욱 작가를 초청한 강연회(21일)는 서구문화센터에서 연다.

◇남구 문화정보도서관=11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한 뒤 버려지는 폐지로 재활용 종이를 만드는 ‘푸른 숲을 위한 수제 종이 만들기’(16일) 행사와 직접 책을 만들어보는 ‘스프링 북-봄을 만드는 자연 이야기’(14일) 행사로 아이들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이었다. ‘숲을 그냥 내버려둬!’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라는 환경동화(16·17일) 구연 행사도 갖고 환경 애니메이션(18일)도 상영한다.

◇일곡도서관=독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명언을 이용한 ‘나만의 책갈피 만들기’와 ‘일곡도서관에 바란다’, ‘숨어있는 사자성어를 찾아라’, ‘미술관으로 간 꼬마피카소 명작전’ 등의 행사가 18일까지 이어지고 동화도 상영한다. ‘박성휘 화가가 들려주는 신화이야기’(14~15일), ‘안니와 함께 신나는 그림책 읽기’(14~15일) 행사도 열린다.

◇신기도서관=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압하·리본공예 체험교실’(12·13일)을 무료로 운영하고 ‘쿠기 한 입의 인생수업’(14일)이라는 주제로 책도 읽고 쿠기도 만드는 행사를 진행한다.

◇침단도서관=‘도서관 추천놀이’라는 제목으로 15권 정도의 책 속 문구를 찾아내는 행사를 도서관주간 기간동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행사 기간 ‘출석도장을 찍어요’도 열어 상품도 증정한다. 학부모를 상대로 ‘우리아이 책 읽어주기 어떻게 할까?’ 특강도 연다.

◇전남도립도서관=도서관 주간을 앞두고 ‘전남도민 한 책 읽기’의 추천도서를 투표로 정한다. 132권의 추천도서를 접수받은 뒤 3개 분야(어린이·청소년·일반) 17권의 후보도서를 선별했고 이중 각 분야별 한 권씩 3권을 뽑아 오는 23일 선포식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한다. 이후 ▲작가와와의 만남 ▲북 콘서트 ▲독서왕 선발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17일까지 전남도립도서관 남도화랑에서 열리는 ‘북 아트전’ (전남도 제공)

호남최대 원목가구 Sale

쇼핑몰 hong79.com(홍친구 닷컴)

원목식탁 30종류

거실 TV장 20종류

친환경 원목가구 셀러트, 인까사, 광주대리점 까사도 한국총판

신혼가구에서 이태리가구 까지 원목가구만 200평 대형매장

홍친구 닷컴 hong79.com

☎ 1899-0240

삼성카드 6개월 무이자 판매

동구 장동 58-15 장동로터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시술후

50만원~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인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구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인가든상가 2층

大山프리모가발